

# 한국지구과학회 28대 학회장 선거 학회 발전 계획서 (선거공약)

## 1. 인적 사항

이 름	좌 용 주	소 속	경상대학교
-----	-------	-----	-------

## 2.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1979.3 ~ 1983.2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	이학사
1983.10 ~ 1985.9	일본 도쿄대학	지질학	이학석사
1985.10 ~ 1989.3	일본 도쿄대학	지질학	이학박사

## 3. 주요 경력 사항

### 3-1. 일반 경력

근무기간	기관	직위(직명)	비고
1989.04~1992.02	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1992.04~현재	경상대학교	교수	대학원부원장 기초교육원장 등
2002.12~2004.02	호주 Macquarie 대학	객원교수	지구행성과학과
2004.03~2006.12	호주 Macquarie 대학	겸임연구원	ARC Key Center
2009.01~2011.02	지식경제부 국가참조표준센터	센터장	화강석데이터센터
2010.07~현재	지식경제부 RIS사업	사업단장	거창스톤사업단

### 3-2. 국내 학회 경력

근무기간	기관	직위(직명)	비고
1989.10~현재	대한지질학회	정회원	이사, 편집위원 등
1994.09~현재	한국암석학회	이사	편집위원장 등
1996.04~현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평의원	
1993.09~현재	한국지구과학회	평의원	편집위원 등
2014.01~현재	한국지구과학회	부회장	
2017.01~현재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위원장
2017.04~현재	한국지구과학회	2019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조직위원장

### 3-3. 정부위원회 경력

활동기간	주관부처	위원회명	역할	비고
1999.7~2013.8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심사위	심사위원	
2007.9~2008.3	과기부	공공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기획 및 평가
2009.7~2011.7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기획 및 평가
2013.5~2013.12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위	전문위원	
2009.12~현재	국토부	골재수급심의위	심의위원	
2011.4~2013.3 2015.4~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3-4. 수상경력

연월	수여기관	내용	비고
2001.11	과학기술부	우수과학도서 저자상	가이아의 향기
2005.11	교육과학기술부	우수과학도서 저자상	베게너가 들려주는 대륙이동이야기
2006.05	한국암석학회	도암 학술상	
2010.05	한국암석학회	공로상	
2014.03	경상대학교	개척 강의상	

## 4. 주요 학술 활동

### 4-1. 대표논문 실적 (최근 4년간 한정)

발행(발표) 연월	게재 저널 (권, 호 포함)	논문명	저자	구분
2016.3	Quaternary International, 392(1)	On the provenance of prehistoric obsidian...	교신저자	SCI
2016.9	Geochemical Journal, 50(4)	Major elements and noble gases of the...	공동저자	SCI
2015.6	Island Arc, 24(2)	Tectonic reconstruction of batholith...	공동저자	SCI
2016.12	문화재지, 49(4)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의 비파괴..	공동저자	KCI
2015.6	한국구석기학보, 31(2)	흑요석 산지 추정 연구의 재검토	교신저자	KCI
2015.9	암석학회지, 24(3)	전암대자율 특성과 SHRIMP...	교신저자	KCI
2015.9	암석학회지, 24(3)	대자율이방성(AMS) 분석을 통한 석재..	공동저자	KCI
2015.3	암석학회지, 24(1)	불국사 삼층석탑에 사용된 석재의...	교신저자	KCI
2015.3	암석학회지, 24(1)	포천 늘거리 유적 석기에 대한 암석학적..	교신저자	KCI
2014.12	암석학회지, 23(4)	영산읍성 성벽에 사용된 암석...	교신저자	KCI
2014.12	한국지구과학회지, 35(7)	팔공산 선본사 관봉 석재여래좌상..	교신저자	KCI
2014.12	한국광물학회지, 27(4)	백두산 흑요석과 가덕도 흑요석..	교신저자	KCI
2013.12	한국구석기학보, 28	흑요석 산지연구에 사용되는 지구화학..	주저자	KCI
2013.12	한국광물학회지, 26(4)	우리나라 선사시대 옥기류의...	주저자	KCI
2013.12	한국신석기연구, 26	고성 문암리 유적 출토 석기의 원산지 추정	공동저자	KCI
2013.6	문화재지, 46(6)	낙산사 칠층석탑에 발달한 미세균열..	교신저자	KCI

#### 4-2. 특허 실적

연월	특허명	특허번호	출원국	등록/출원
2013.4	실외용 조명등	10-1259882	한국	등록
2013.1	안전 유도 경계석	10-1219422	한국	등록
2013.1	교명주 및 이를 이용한 정보제공방법	10-2013000	한국	등록
2011.7	폐자재를 이용한 보도판석 및 ...	10-1052085	한국	등록
2011.5	엘이디 발광 경계석	10-1035229	한국	등록
2011.2	화강석을 이용한 스킨존	20-0452265	한국	등록
2010.2	직선 곡선 겸용 경계석	10-0944377	한국	등록
2010.2	석폐기물을 활용한 토목자재 및 ...	10-0942150	한국	등록
2010.3	경계석 및 그 제조방법	10-0947625	한국	등록

### 4-3. 저서 실적

연도 (초판)	제목	발행처	출판사	저자구분
1992	지구물리개론	한국지구과학회	범문사	공역
1994	지구환경과학개론 I,II	한국지구과학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공저
1998	지구과학개론	한국지구과학회	교학연구사	공저
2003	지구과학학술용어집	한국지구과학회	시그마프레스	공저
1997	지구라는 행성	경상대학교	춘광	공저
2002	고체지구의 이해	경상대학교	경상대출판부	공저
2001	가이아의 향기		황금북	단독
2005	스콧이 들려주는 남극이야기		자음과모음	단독
2005	베게너가 들려주는 대륙이동이야기		자음과모음	단독
2005	리히터가 들려주는 지진이야기		자음과모음	단독
2005	월슨이 들려주는 판구조론이야기		자음과모음	단독
2007	천재들의 과학노트. 4: 지구과학		일출봉	단독번역

## 5. 학회 발전을 위한 활동 계획

한국지구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대 학회장에 입후보한 경상대학교의 좌용주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래에서는 학회발전을 위한 제 계획과 포부를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입후보자의 소개

#### *“지난 25년의 학회 경력을 바탕으로 봉사하겠습니다”*

1989년 가을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25회 한국지구과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제가 학회와 인연을 맺게 된 첫 계기였습니다. 28년 전의 일로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학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에게 학회 선배님들께서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학회 주관으로 지구과학시리즈 출판물을 제작하던 것이었으며, 아주 운이 좋게도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지구물리개론]의 출판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학회가 주관한 여러 출판 작업, 즉 [지구환경과학개론], [지구과학개론], [지구과학학술용어집] 등의 출판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학회를 위해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가을 평의원의 자격을 얻음과 동시에 편집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입니다. 사실 25년 가까이 학회 평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학회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반문하시면 매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하기에 남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해 학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노라 염치없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지구과학이란 학문의 활용과 대중화를 위해 나름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직 대학에서 지구과학 교양과목을 계속 강의해 왔으며, 관련된 2권의 교재도 저술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엠버서더로 활동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시골 구석구석의 아이들에게 지구 이야기를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반인과 학생들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구과학 내용의 책을 여러 권 집필하였고, 그 중 2권은 우수 과학책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구과학의 활성화를 위한 제 개인적인 노력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학회를 위해 매진해 보고자 합니다. 평의원으로, 편집위원으로, 학회의 여러 출판물의 공저자로 활동한 경험을 되살리고, 최근 맡고 있는 학회 일을 통해 앞으로의 봉사가 학회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학회의 임명직 부회장 중 한 사람으로 학회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의 위원장으로, 그리고 4월부터는 2019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장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지구과학과 그 교육에 있어 훌륭한 기반 학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 2. 학회의 존립 취지와 역할에 대하여

### “학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1965년에 발족된 지학교육연구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69년 발족된 지학교육회와 통합하여 1973년에 한국지구과학교육회로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 1986년에 한국지구과학회로 학회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지난 2014년 50주년의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학회의 초기 연혁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지구과학이 학문으로서, 또한 교육내용으로서 제대로 인식된 것이 1960년대 후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 지구과학이 필수교과목으로 자리한 것이 1968년부터이며, 이 시기 전후로 기존의 서울대, 경북대, 공주사대에 더해 여러 대학에 지구과학교육학과 내지 전공이 설치되었고, 많은 지구과학 교사들이 양성되었으며, 우리 학회 회원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학회의 연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우리 학회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 보아야만 합니다.

한국지구과학교육회가 한국지구과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1986년이고, 그 사유는 국가로부터의 학술단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고 합니다(유경로, 1989). 그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 학회의 존재 이유를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지구과학교육회는 출발 당시 천문학회, 기상학회, 해양학회, 지질학회 등을 학술단체로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회로서 활동한다는 역할 분담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구과학 전반의 학술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다루어야 하지만 ‘교육’에도 큰 무게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회는 오랜 기간 내용학과 교과교육에서의 조화를 위해 힘써 왔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조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도출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구과학이 중등교육에서 보편화되고서 현장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론과 현장에서의 조화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학회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구과학 내용학의 전문 학회도, 지구과학교육학의 전문 학회도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학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구과학교육의 활성화’라는 사명을 안고 있는 우리 학회로서 아직까지는 현장 교육을 위해 이바지 한 것이 크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교사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시행한 적도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학회 개최의 시기적 문제라고 하는 물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었을까요? 흔히 지교연이라 불리는 지역적인 교사들의 연합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학회로서 그 구심점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회의 정체성과 활성화, 이 두 가지 문제는 지난 50년간의 숙원이었으며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디선가 매듭짓고 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과교육 분야의 일부 회원들이 2008년 1월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를 창립하여 떨어져 나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여 분기되면 학회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다시 하나 되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학회가 그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제대로 교육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학회가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3. 학회가 맞이한 현재의 위기

#### *“현재 학회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겠습니다”*

우리 학회 명부에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약 1200명 정도입니다. 2008년 이전에 약 250여 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 멈춘 것으로 판단되고, 2008년 이후 매년 60~80명 정도가 활동을 멈추고, 최근에는 매년 100명 정도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외로 볼 때 활동하는 정회원의 수는 200명 내외이며, 학술발표회에 참석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10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회의 회원 수 급감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의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회 회원의 수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학회 재정의 악화입니다. 회원들의 회비 수익이 줄고, 투고 논문수의 감소에 의한 투고료의 감소, 학술발표회에서의 등록비 감소 등등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나마 지난 10년의 재정 감소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간 학회가 의욕적으로 진행해 왔던 출판사업에 의한 수익 구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구과학시리즈를 출판하면서 재정확충을 도모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녹록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학회 재정의 불안 요소가 곧바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데는 의외의 지원 자격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의 예는 바로 2007년 제1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의 대구 개최로 시작된 국제올림피아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지구과학올림피아드 사업의 일부 재정적 지원이 학회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지요. 다른 예로서는 물학술단체의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회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학회의 존립 가치 중에 학회지 발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두드러지게 감소된 투고논문의 수로 말미암아, 1년 7회(정기 6회 + 영문 1회)의 발행 수를 최근 이사회에서 6회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투고논문 수의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학회지의 발간에 따른 학회의 위상, KCI 저널 자격 유지, 지원금 액수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학회지의 발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회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4. 학회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약속

*“저는 아래의 다섯 가지 일을 하고자 합니다”*

**① 학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회가 성장하려면 회원 수 증가와 재정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구과학 관련 분야(학, 연, 산, 관 등)에 대한 학회 홍보를 강화하여 회원 수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수익모델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회지를 통해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도 이루겠습니다.

**② 국내 지구과학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구과학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학회 분과활동을 장려하고, 그 결과로 파생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매개로 하여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구과학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중·고등학생 대상 지질탐사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③ 지구과학의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학회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지구과학의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조화로운 협업이 현장 교육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의 지구과학교사들이 학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와 연계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학회 차원의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직 교사들이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④ 지구과학올림피아드의 활성화와 2019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구과학올림피아드 사업은 우리 학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1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고, 또한 2019년에 제13회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중등 지구과학교육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의 성과를 통한 스피노프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⑤ 명실상부한 한국지구과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구과학교육의 명실상부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교육계 전반에서 지구과학교육 분야의 활동이 크게 활발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학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분기되어 나간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와 다시 통합하여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같은 마당에 같은 길을 나누어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라도 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 초석을 제가 놓겠습니다.

## 5. 입후보자의 다짐

### *“함께 해서 즐겁고 신명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줄곧 걸어온 길은 중등교육의 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구과학의 대중화와 교육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 교육과정 개편작업에도 참여해 보았고, 수능출제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회를 통한 지구과학 교양서의 편찬에도, 제가 속한 학과의 교양지구과학 강의와 저서 저술에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학대중화를 위한 저서의 저술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능력 내에서 지구과학의 학문과 그 교육을 위한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학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지구과학회를 한층 더 성장시켜 우리나라 지구과학 교육에 큰 이정표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비록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2020년부터 시작되지만, 차기 회장님의 학회발전을 위한 구상도 제가 바라는 학회 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수석부회장으로서 차기 회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부대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학회 활동이 즐거워야 하고, 학술발표회에 참가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릴 것은 ‘함께 해서 즐겁고 신명나는 학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